

정상과 병리의 변주, 책임의 윤리

이문환, 『럭셔리 걸』에 비친 한국 사회

차 원 현 · 문학평론가

폭력과 일상

폭탄은 급진적인 폭력의 메타포이다. 그러므로 ‘폭탄이 난무’한다 함은 평화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日常)의 부재를 뜻한다. 평화는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고 그런 까닭에 비교적 손쉽게 획득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일상은 그렇지 않다. 훨씬 장기간의 노력과 뼈를 깎는 심려(心慮)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시인은 전쟁을 두고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고 일상이다/보라 이라크,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빛은 문명을 밝히지 않고/밤마다 포탄의 섬광이 다리 잘린 어린이를 드러낸다.”(김정환, 「섬광과 참혹」)라고 웅게 말할 수 있었다. 쟁점이 없지는 않았다. 이어지는 연(聯)에서 시인은 “나는 아픈 다리로 외친다/앵글로 색슨족, 이라크 침공을 중단하라/중단하라”고 하여 ‘다리 잘린 어린이’의 문제 혹은 파괴된 일상의 문제를 패권주의적 제국들의 폭력성으로 환원하고 말았는데, 사태의 한 면만을 본 결과였다.

일상의 파괴는 어느 한쪽의 책임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평화와 일상 혹은 감상적 평화주의자와 진지한 일상론자가 갈라지는 지점이 여기이다. 잘린 다리를 부여잡고 파괴된 일상을 힘겹게 살아내어야 할 어린이의 문제는 폭력과 파괴에 가담한 쌍방의 문제이지, 어느 일방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 일상적 삶의 문제는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을 지목하여 그에게 책임 전체를 전가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뜻이다. 폭력과 파괴의 문제를 일방의 원인 제 공자로 물고가는 순간 정치적 프로파간다라는 허방에 빠지게 되고 기껏해야 감상적인 평화주의자가 되고 만다. 피바른 선

동가들이나 할 것이지 진지한 시인이 할 바는 아니다. 무릇 시인이라면 전쟁과 점령, 폭력과 파괴 위에서만 자신을 표현해 낼 수 있는 현금의 문명이 갖는 비루함과 그 근저에서 작동하는 급진적인 폭력, 문명의 어두운 심연에 펜을 들이대고 그 근원적인 병리성을 응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상과 병리

이문환의 신작 소설집, 『럭셔리 걸 Luxury Girl』은 문명의 일상이 갖는 이 근원적 병리성에 대한 통찰을 지렛대 삼아 현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환부(患部)의 핵심으로 뛰어들고 있다. 푸코(M. Foucault)의 전언에 따르면, 통상 우리가 정상(正常) 문화라고 부르는 것의 배후에는 근원적 병리성이 잠복해 있다. 자연 속에는 항용 타락과 부패, 몰락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달은 차면 이지러지고, 모든 살아 있는 것은 무릇 소멸하고 부패하게 마련인 것이 생태계의 법칙이다.

문명은 바로 이 자연 속에 상존하는 부패와 소멸의 가능성에 울타리를 세워 위생처리된 제2의 자연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정상과 병리를 가르는 울타리는 매우 취약하고 유동적이어서 어느 때 귀퉁이의 한 모서리가 무너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마련이고, 일단 균열이 발생하면 갈라진 틈을 비집고 밀려온 병리성의 파도는 문명의 근거 일체를 순식간에 휩쓸어 파괴해 버릴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천부인권론에 기반한 혁명 선언은 길로틴에 의해 연출된 야만적 폭력의 씨앗을 그 안에 품고 있었고, 몸의 자유에 대한 급진적인 주장이 근친상간의 아나키적 섹스 쪽으로 가버린 결과 공동체 해체의 외디푸스적 참극으로 귀결되고 만 것 등은 좋은 사례들이다.

문명 속에서 무릇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성립되는 순간 그 이면에서는 파멸의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파멸의 가능성은 체제와 문명, 일상의 오작동이나 미성숙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문명과 일상의 정상성 자체가 균열과 파열의 병리성을 조건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전자가 그 극단에 이르면 비로소 후자가 심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이문환의 소설들이 그려내고 있는 것은 이런 류의 비극성 위에 서 있는 일상의 본질적 취약함과 그 배면에 존재하는 병리의 음험한 심연에 탐침을 들이댄 작품이다. 균열과 파멸, 병리성이 인간 삶의 폐기될 수 없는 본질 중 하나라면, 그의 소설들은 바로 이 인간학적 사실들의 탐구를 통해 현금 한국 사회의 환부를 해부하고 있는 보고서인 셈이다. 표제작인 『럭셔리 걸』은 성형된 가공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한 명품족 여성의 좌절을 통해 신체의 가공 속에 서식하는 현금 사회의 병증과 위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것이라 보는 것이 정확하다. 발문을 쓴 소설가 김연수의 말마따나 문명이 ‘인공의 유리 궁전’ 이라면, 미세한 균열이야말로 치명적이다. 고도의 집적도를 자랑하는 컴퓨터가 한 줌의 바이러스를 견뎌내지 못하는 것은 전자가 바로 후자의 배양기이기 때문이다. 로마의 붕괴는 야만인들의 내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마라는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내고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배양해 냈던 내부의 사소한 질병, 탐욕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다. 정상성의 한 가운데 그늘진 병리성의 심연이 아가리를 벌리고 존재한다는 사실과 언제든지 그곳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삶에 상존해 있다는 사실은 무서운 일이다. 정상과 병리,

문명과 야만, 향유와 기생충의 삶이 교차하고 변주되는 좁은 길만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은 삶이 갖는 근원적 비극성의 문제를 환기시킨다. 힘을 기울여 균형을 잡고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을 수 없다. 삼가고 조심하며 인간 존재의 비극성을 바닥에 깔고서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문환의 소설들이 그려내고 있는 것은 이런 류의 비극성 위에서 있는 일상의 본질적 취약함과 그 배면에 존재하는 병리의 음험한 심연에 탐침을 들이댄 작품이다. 균열과 파멸, 병리성이 인간 삶의 폐기될 수 없는 본질 중 하나라면, 그의 소설들은 바로 이 인간학적 사실들의 탐구를 통해 현금 한국 사회의 환부를 해부하고 있는 보고서인 셈이다. 표제작인 『럭셔리 걸』은 성형된 가공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한 명품족 여성의 좌절을 통해 신체의 가공 속에 서식하는 사회의 병증과 위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어느날 갑자기 엄습해 온 사소한 알레르기 하나 때문에 공들여 다듬어온 신체가 훼손되고, 그 위에 구축된 일상의 행복이 무참히 깨질 수 있다는 사실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세속적 가치들을 움켜잡기 위해 징발된 신체들의 반란이다.

사태의 원인을 허영에 빠진 여성들의 뒤통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턱을 꺾고 눈알을 까뒤집어서라도 잘살아보겠다는 여성들의 허영심도 문제이거니와 더 큰 문제는 여성들이 겪는 그런 류의 고통 속에서 아비한 희열의 자양분을 발견하는 이 사회의 새



文學

삶에 대한 관심 자체가 폭탄의 장악인 것이다. 삶에 대한 관심과 관여가 갖는 원초적인 부담으로서 폭력은 존재하는 것이지, 폭력이 삶에 부가적인 어떤 것이거나 잉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폭탄엔 반드시 시동자가 있는 법. 우리 모두가 폭탄의 시동자이고 우리 모두가 공범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 '내 탓'에 기반한 새로운 윤리학이 요청되는 시대에 한국 사회가 진입해 들어와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디즘과 그것의 병리성이다. 신체 가공의 아픔과 고통을 요구하고 그 속에서 자기 재생산을 추구하는 현재 한국 사회의 일상이 갖는 위기의 본질과 근원적 병리성이 타겟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문자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기실 나르시시즘의 닫힌 경계 내에서만 소통하는 차가운 연정에 지나지 않음을, 그 속에는 반복되는 기계적 섹스의 비루한 동물성과 관계 맺기의 실패를 은폐하는 연극적 몸짓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임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노마드」는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이 그려낸 개인의 완미(完美)한 자율성에 대한 현대적인 욕망이 공모된 살인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통해 급진적인 자유 속에 내장된 폭력적 야만의 병리성을 그린 작품이다. 자기 준거성(self-referentiality)에 입각한 '명량한' 자율성의 표현은 전체주의 체제의 모토였다.

가치 있는 연대를 향한 윤리성을 놓치는 순간 아우슈비츠의 비극이 재연된다. 「마술사」, 「헤정과 형만과 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몸의 자유에 대한 급진적 요구가 성욕의 쇄사에 포박된 개체의 부자유로 귀결되는 역설을 통해 가장된 순수성(Innocence)의 배후에는 항시라도 성욕의 정글로 추락할 가능성이 상존함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몸의 자유가 극대화되면 외디푸스의 비극이 나타난다. 진실

을 깨달은 뒤 외디푸스가 그러했듯 '두 눈을 후벼 파지' 않고 서는 차마 볼 수 없는 세상, 가치 있는 연대를 가능케하는 삶의 형식 자체가 붕괴되어 버린 암울한 디스토피아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소포클레스는 무릇 인생이 끝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스스로 행복하다 말하지 못할 것이라 했거니와, 삶이란 폭탄과 같은 것이어서 정상과 병리, 문명과 야만, 향유와 기생충의 삶이 분별되지 않은 채 교차하고 변주되는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허방에 빠지고 공중 분해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폭탄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폭탄을 다루는 법

위장 폭탄(infernal machine)이라는 것이 있다. 'infernal'이라는 단어는 '지옥의/악독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니 위장 폭탄(infernal machine)이라 하면 원래는 지옥을 맛보게 하는 기계인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외양을 띠고 있다는 뜻이다. 정상(正常)의 외양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파괴의 에너지, 일상을 통째로 날려버릴만한 장악을 머금고 있는 병리성의 깊은 근원을 숨겨 가지고 있다. 한번 맛을 들이면 그만큼 달콤한 것이 없지만 결과는 지옥을 맛보게 하는 삶의 신비한 역설, 예컨대 선인들이 새옹지마(塞翁之馬)라 불렀던 그런 류의 삶의 진실은 정확히 위장 폭탄을 닮아 있다.



〈화녀와 알렉산더〉

통상적인 폭탄이 외부(外)를 향해 터져나가는 응축된 에너지의 발산, 곧 외파(外破 explosion)하는 폭력이라 한다면 정상으로서의 삶에 내재한 위장 폭탄은 내파(內破 implosion)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일치된 사랑은 그것이 최고조에 도달해 있을 때 비로소 내파의 장악에 불을 당긴다. 일치와 통합을 향해 줄달음쳐 온 두 연인은 자신들이 사랑의 노예가 되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사랑은 이제 서로를 포박하고 얹어매며, 감시하고, 규율하는 폭력의 또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달콤한 사랑에는 폭력의 야만이 스며들어 있고, 질투와 망상 속에 스스로를 분해시켜 버리는 광기가 준동하고 있다. 잉그리드 베르히만 감독의 1982년작 <화니와 알렉산더>가 보여준 사랑의 논리는 정확히 이런 종류의 것이었다. 감독은 의심과 질투의 감옥에 갇혀 스스로의 몸에 불을 댕겨버린 한 사내의 끔찍한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댔으로써 완성된 사랑의 섬뜩함, 그 병리성의 극단을 보여주었다.

천부(天賦)의 자유권에 대한 호소와 '나는 나다'라는 류의 급진적 주권 의식은 인력 시장의 왜소화된 노동력으로 축소된 현대 인류를 낳았다. 그곳에서 개인은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관리되는 노동 기계로 전락한다. 시장의 손짓에 호응하는 때 춘부적 삶의 이면에는 생명 특유의 능동성과 악동을 상실한 박제된 영혼들, 살아 있는 감각의 돌기들만이 창궐한다. 아우성치는 감각의 돌기들 위로 말초적인 욕망의 논리 위에서 작동하는 자본주의적 대중 문화의 기계들이 굉음을 울리며 지나간다. 결과는 마비이고 예측이며, 죽음이다.

문제는 이른바 우리가 '환(幻)'이라 할 때의 그 '허깨비'에 해당하는 일체의 문명적 가치들이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위장 폭탄의 성질을 닮아 있다는 점에 있다. '환(幻)'이란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물이 투사(Projection)에 의해 숭고(崇高)한 대상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연인간의 사랑이라는 사소한 사적 영역으로부터 국가에 대한 공공적 신앙에 이르기까지 환(幻)은 일종의 물신화된 가치들에 대해 붙이는 이름이다. 예컨대 돈은 종이짜에 불과하지만 다중의 집단적 투사에 의해 배금(拜金)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국가는 언어와 민족, 문화의 단일성에 대한 환상 속에서 '상상된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다.

삶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가능할 것이다. 환(幻)이 일체의 쇄말적인 관심들을 빨아들이고 그로써 삶이 완성되었다고 생각케 하는 일단의 가치들, 즉 보잘 것 없는 삶을 가치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고 봉합될 수 없는 파편화된 경험들을 묶어 일관된 의미의 체계로 켈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적 가치들의 외피를 입고 나타난다면, 이런 류의 사회적 가치들로 가득 에워싸인 일상적 삶이야말로 위장 폭탄들로 둘러싸인 위기의 그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릇 문명과 일상이 스스로를 가치 있는 그 무엇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통해 의미있는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고착되는 순간 폭탄은 터진다. 그러므로 문제는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운명임을 깨닫고 이 폭탄을 어떤 식으로든 순치시키는 법을 배우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상은 폭력이다. 가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합의해 준 문명 역시 폭력이다. 폭력은 삶에 대한 우리의 관여가 갖는 원초적 부담과 관련되어 있다.

삶에 대한 관심 자체가 폭탄의 장악인 것이다. 삶에 대한 관심과 관여가 갖는 원초적인 부담으로서 폭력은 존재하는 것이니, 폭력이 삶에 부가적인 어떤 것이거나 잉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폭탄엔 반드시 시동자가 있는 법. 우리 모두가 폭탄의 시동자이고 우리 모두가 공범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 '내 탓'에 기반한 새로운 윤리학이 요청되는 시대에 한국 사회가 진입해 들어와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책임 나누기 혹은 책임 떠안기

삶의 지혜를 설파하고 그로부터 정신의 위안을 구하라는 식의 책들이 독서계를 휩쓸고 있다 한다. 대개 황금 숭배와 경쟁 지상주의에 빠져 몸과 마음을 상한 현대인들을 위로하는 책들이다. 반대로 다른 한쪽에서는 『10억 만들기』 시리즈나 『부자 아빠 만들기』 시리즈 등 이른바 노골적인 배금 사상을 설파하고 있는 책들이 지혜로운 인생 지침서의 외피를 입고 판매되고 있다. 한 쪽이 사랑과 우애, 헌신 등 등가성의 원리에 입각해 교환불가능한 윤리적 가치들을 역설하고 있다면, 다른 한 쪽에서는 골방에서나 주고받아야 될 돈 이야기를 대중들 앞에

文 學

서 거리낌 없이 토설하는 ‘매춘부들’의 언어가 횡행하고 있다. 양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양극성이야말로 현재의 한국 사회가 경과하고 있는 시대의 윤리적 수준을 여실히 되 비추는 거울이라 해야 할 것이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빅터 한센 · 잭 캔필드 공저, 류시화 역, 이레, 2001)의 원 제목에는 ‘영혼에 다시 불 붙이기(Rekindle the Spirit)’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인간 영혼이 갖는 위대함과 아름다움, 선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로부터 착한 인간들의 연대(連帶)를 만들어내기 위해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들이 서술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윤리적 연대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계율의 엄격한 준수와 고된 영적 훈련을 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만 진정한 윤리적 주체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저러하게 해보는 것이 당신의 영혼에 좋다’는 할리우드식 카운셀러의 충고 같은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이 시리즈물의 광고 문안은 ‘짧지만 긴 여운을 주는’, ‘감동적인’, ‘영혼의 영양소’ 같은 수식어들로 채워져 있으며, 완결편에 해당하는 「희망을 향하여」에서는 “희망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당신 마음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라”는 주의주의적 통찰이 메시지의 핵심으로 제시된다.

삶의 지혜는 “어떤 상황이든 침착하고 현명한 방법을 구하는 태도”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고, 차이를 대립과 투쟁으로 몰고가지 않기 위해 요구되는 관용의 정신은 ‘나’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너그러움의 증좌일 때만 가치 있는 것으로 수용된다.

문제가 없을 수 없다. 한 마디로 거기에는 ‘타인을 수단으로 서만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정언명령식 윤리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칸트는 수단화할 수 없는 개인들, 그런 까닭에 기존의 사회적 형식들 속에서는 합의가 불가능한 개인들과의 역설적인 합의, 곧 절대적 타자와의 합의를 촉구하는 일이 윤리의 몫이라 생각했다.

미래의 후손들과 맺는 환경 협약 아래 현재의 문명을 잠정 화시키는 일이라든지, 합의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체제의 바깥으로 던져버린 오물같은 삶들과의 소통을 개시하는 일 따위가 그러하다.

이런 류의 합의는 인과론적 인식에 따라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일방의 당사자를 지목하여 그 희생 위에 사태를 잠정화하는 희생양 제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일은 오로지 ‘내 탓이다’라는 자기 연원적 태도로서의 책임 떠안기를 향한 몸짓 속에서만 가능하다. 예컨대 우리는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이 가시적으로 지목될 수 있는 몇몇 원인들 때문이라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옳다.

그러나 거기에는 책임이라는 요소가 빠져 있다. 진리의 순간(time of truth)이 닥쳐왔을 때 이웃에 대한 연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버린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다른 것은 모두 그 회피와 방기, 그리고 그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차가운 이기(利己)의 사후적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를 이야기할 때 항용 운위되는 것 중 하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가 되는’ 정글의 사회라는 등의 수식어들이다.

자본주의가 낳은 배금주의는 인간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훼손시켜 버렸고, 시장주의적 경쟁은 제로섬 게임의 규칙 속에 개인들을 몰아넣음으로써 고귀한 인간적 연대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금의 윤리적 상황이다.

인간됨의 회복에 관한 서사를 주 포맷으로 방영되는 <인간극장> 류의 다큐멘터리가 예술을 대신하여 대중들의 눈물과 공감을 자아내고 윤리적 연대의 부활에 관한 기획들이 현금 한국 사회의 으뜸가는 의제(議題)로 설정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야스퍼스(K. Jaspers)의 말에 따르면, ‘내’ 책임이다라는 전제 위에서만 책임의 배분이 문제로 설정될 수 있다. 현금의 우리 문화는 어떤 수준의 윤리적 명령을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